

서울대 기독교 연합(사기연)은 서울대학교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건강한 연합으로, CCC, IMF, 예수전도단 등 캠퍼스 선교단체들과 단과대 기도모임들이 합체하고 있으며, 전국 학생복음화협의회 소속 단체입니다. 사기연은 신장기 및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 개강예배

2024년 1학기

주최: 서울대기독교연합(사기연)  
주제: 복음의 연대성과 확장성  
설교: 이지열 목사님(서울 영동교회)  
본문: 로마서 1장 16절  
시간: 3월 11일(월) 저녁 6시  
장소: 학생회관(63동) 2층 라운지

“더 깊게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서울대기독교연합 | snu\_christianunion | 서울대기독교연합 | 서울대기독교연합

### 개강예배

서울대기독교연합 연합 사경회가 3월 11일 월요일 6시에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열린다. 이번 개강예배 말씀은 이지열 목사(영동교회)가 담당한다. 주제는 ‘더 깊게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이며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이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단과대별 식사 교제가 예정되어 있다.

###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홍종인
- 2면 사기연 대표 이임사 ... 남명현  
학생기자의 글 ... 장동원
- 3면 간호기연 소개글 ... 이예은  
비전스쿨 유럽여행기 ... 전혜원
- 4, 5면 선교단체 소개
- 6면 원단금식기도회 ... 편집부  
중앙위원단 LT ... 문예은  
ISM 유학생사역  
SNU 바이블 칼리지
- 7면 삼크 모임 ... 김은비  
신앙오티 후기 ... 김수훈/신화영/김도진
- 8면 종강예배/신앙오티

### 교수칼럼



저는 지난 2월 말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31년 동안 정든 캠퍼스를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그동안 서울대에서 기독교수로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서울대를 떠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이유요, 전 부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 즉 다른 말로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째 답변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우연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던져진 존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을 뒤로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고 그 답을 알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바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관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는 좋아지고 역사는 진보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는 낙관적인 견해에 불과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독재와 인권유린을 보면 이것들이 인간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견해는 비관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인간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도 문제가 있지요. 역사를 보면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인간 안에 있는 어떤 희망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양극단의 견해를 지양하고 인간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적 능력, 의지력, 도덕성, 사랑의 능력 그리고 창조성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지요. 또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의지력과 지혜와 도덕적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또 우리에게에는 예술성, 즉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의성과 상상력이 있지요.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고 디자인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연극을 하고 소설과 시를 쓰는 것들은 모두 창의성과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건조하지 않고 다양하고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본연의 인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욕과 죄악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마가복음 7:21-23).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로마서 3:23). 우리는 평소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위기가 몰려오면 마치 우물 바닥을 휘젓게 되면 바닥에 있는 온갖 오물과 쓰레기가 올라와 온통 물을 더럽히는 것과 같이 영

려와 근심과 분노와 미움과 더러운 생각과 탐욕이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에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면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죄인으로서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구제 불능의 죄인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로마서 7:24) 사도 바울의 이 절규가 바로 저의 외침입니다.

성경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둘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는 절망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가능성조차 사라진 완전한 구원과 자유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

저는 성경 안에서 이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전한 성취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왜 십자가가 꼭 필요합니까? 왜 굳이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로마서 6:23)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므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거슬러서 그냥 말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원히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인권유린과 불의한 권력과 독재로 인한 고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악을 징계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창세기 3:15) 악의 세력을 무력화하시고 정복하셨고(골로새서 2:15)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고린도전서 15:57).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에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과 눈물과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참 평화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잠시 낙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긴 자이고 내세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 2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답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을 삽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한 이 소망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의 삶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기도하면 사랑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요. 이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순종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꿈,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안에 심어주신 너무나 고상하고 존귀한 꿈, 그 꿈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마지막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제 안에 간직하게 된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중심적 삶에서 벗어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을 삽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 뿐 아니라 이런 소망에 관하여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종인(화학과)

## 서기연 대표 이임사



관악에서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끊임없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는 길에 갑자기 나타나셨고, 저를 매혹하여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서기연 대표를 원치 않았습니 다.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공동체와 연합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실제 없는 허상을 사랑했기에 탈진한 채 쓰러져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나 관계가 아닌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사랑이 남긴 수많은 상처로 깊게 앓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허무를 허무적거리며 사십여 일을 골방에 틀어박혀 묵상과 기도로 극야(極夜)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강한 권능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슬플 때 위로가 되어 주셨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능력이 필요할 때 힘이 되어 주셨고,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 주셨으며, 굶주릴 때 양식이 되어 주셨고, 목마를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 완강히 거부하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대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저로서는 두려웠습니다. 연합의 가치와 의미가 퇴색되어 가

는 사태를 바라보며 서기연이 더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열매 맺지 못한 채 땅만 버리는 서기연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 두려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서기연을 제 손으로 찍어버려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눅 13:7-8)

저는 서기연을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 다. 다만 매일 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나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아무리 노력해도 저 자신을 주님께 기쁨의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 없는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갖 죄악으로 더럽고, 여러 상처로 아파합니다. 저는 흠 없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저 같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럽고 상처투성이인 저 자신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날 오라 부르십니다. 불순하고 망가진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여정으로 초대하십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를 때 오랫동안 앓던 상처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저를 흠 없는 제물이 되게 하사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으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으나 모든 것을 주십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서울대에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우며, 무익한 종이 감히 헤아릴 수도 차마 형언할 수도 없는 수많은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못난 죄인을 부르신 까닭은 여전히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 대학생할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서로 온전히 마주할 그때에 함께 나눌 캠퍼스에서의 추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가 이르러 학교를 떠나지만, 지금까지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누린 복으로 족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믿음의 벗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 다. 특별히 부족한 대표와 함께 해준 중앙위원단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남승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은혜는 갈을 길이 없습니다. 삶과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겨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합니다.

예수로 빛난 청춘이 서린 기연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쁜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합 3:2)

남명현(종교학과 18)

## 학생기자의글

### 졸업 후기: 비교를 넘어 새 길로



1. 2월 26일, 학부 과정을 졸업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점심을 먹고 나오니, 마이스누 앱에 신분이 졸업생으로 바뀌어 있었다. 머쓱할새도 없이 졸업증명서를 뽑아 인문대 행정실에

내서 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교수님께서 메일로 알려주신 강연을 들으러 갔다. 마치고 나오니 거의 6시가 다 되어 있었다. 반방에 들려 친구들이 챙겨준 꽃다발과 선물을 챙겨 터덜터덜 나왔다. 관정관에 비치는 저녁놀이 그 너머로 보이는 눈 덮인 관악산이 장엄했다. 사진으로 담으려고 핸드폰 카메라를 켜니, 직전에 친구들과 사진을 찍느라 켈카 모드였다.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이 어색하다. 새로 지은 파란 양복에 며칠 기쁜 자리 과식으로 잔뜩 부은 얼굴이 딱 조인다. 머리를 긁적이다 산마루나 화면에 담고 돌아간다.

인문대를 돌아나오는 길. 오밀조밀 모인 열 개의 건물을 돌아본다. 앞으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곳이지만, 웬지 마지막 같은 느낌이다. 이곳에 처음 오면서 했던 구상들이 생각난다.

- 라틴어나 그리스어 같은 서양 고전어 배우기
- 한 해에 200권씩 책 읽기
- 사서집주 정독

- 교환학생 다녀오기
- 인문대 CC하기
- 등단하기
- 주일성수! 빠지지 않기
-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 성경 1년1독

거창한 꿈들이었고, 대체로 못 이뤘다. 1학년 때 고전 그리스어 수업을 도무지 따라가지 못해 드랩한 뒤로 서양 고전어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교환학생은 갈 새가 없었다. 인문대 CC는 커녕...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였고, 수십 번 투고했으나 본선에는 겨우 한 번 올라갔다. 주일성수는 하고 싶었으나 한 교회에 마음 두고 정착하지 못했다. 한 명은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아니라 성당에 가버렸다. 그나마 가까이에라도 간 건 읽기에 관한 것들이다. 200권씩 읽기는 휴학했던 해들에 술술 넘어가는 무렵이나 얇은 시집을 꺼서 200권을 채웠고, 사서집주는 전공수업에서 읽으니 그 도움으로 한 번은 원문으로 읽었다. 성경 말씀은 1년 1독은 못 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그래도 읽기에만은 성실하려 했구나, 스스로 다독이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2. 목표가 좌절되면 보통 누군가를 탓한다. 그리고 그 탓할 누군가를 찾지 못한다면 자신을 탓하며 깊은 비참의 늪에 들게 된다. 자신의 탓을 할 때, 성공한 누군가는 가졌지만, 실패한 나에게 없는 무언가를 찾는 비교에 돌입한다. '내게는 A 같은 명철한 두뇌가 없구나, 나는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B처럼 꾸준히 한학을 하지 못했구나, C처럼 준비해서 중화권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더라면 더 중국어를 잘 할 텐데, D처럼 피부가 희고 콧대가 높았으면 나도... F처럼 나도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자랐더라면 교회를 지금

보다 잘 나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지 않았을까? 비교만큼 사람을 피 말리게 하는 것도 없고, 비교만큼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도 없다. 신세나 한탄하며 더 이상의 노력을 멈추게 된다.

이런 말씀이 좌절을 견뎌 내게 힘이 되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딤후 2:20-21)

금 그릇, 은그릇이 좋아 보인다.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투박하고 값도 싸다. 더 나아보이는 그릇과 자신을 비교하며 탄식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그릇은 모두 큰 집의 주인이 사들인 것이다. 다 쓸 데가 있는 그의 소유물이다. 우리 또한 그렇다. 우리가 남들보다 얼마나 부족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어느 누구보다 내가 못해보일 수도 있고, 역으로 나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와 견줄 것 없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그분의 쓰심에 합당한 존재이고, 그분의 선한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존재니까.

우연히 만난 말씀은 아니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열심히 인터넷으로 말씀을 찾아보다가 건진 구절이다. '역시 구하는 자에게는 답을 주시는 아버지구나.' 이 말씀을 얻었을 때, 참 감사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다시금 굳게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께 기도로 여쭙어가며, 학부를 무탈히 마쳤다. 원하던 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도 진학했고, 장학금을 타서 넉넉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부지런히 겨울방학을 보냈다. 모두 감사할 일들이다.

3. 학부 기간 집에 가는 루트는 인문대에서 음대를 넘어 생활대, 수의대를 지나 치과병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

는 식이었다. 그런데 방학 사이에 음대에 공사가 시작되어 음대 뒷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다. 잠시 머뭇거리다 발걸음을 돌렸다. 새 길이 있는 줄 믿고 걸어가 보았다. 앞으로

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쓰실 길 또한 그리 있을 줄 믿으며.

장동원 학생기자(중문 석사과정)

간호기연 소개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공동체의 성장



<2022 가을, 대면 모임 시작 초기> → <2023년 겨울, 가장 최근 모임>

안녕하세요, 저는 2021~2022년 간호대기독교인연합(이하 간호기연)의 대표를 맡았고 현재는 졸업 후 본교 직원으로 근무 중인 이예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대표였지만, 간호기연이 세워진 과정과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단과대 기독교인연합 또는 학과 기도 모임을 세우길 원하는 교내 지체 분들께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간호학과 기독교인 공동체가 생기길 소원했던 때는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19년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고 서로 이끌어 줄 신앙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간호학과 기도모임을 소개받고 대표직을 이어받았지만, 기도모임은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모임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부터 가입했기에 학과 기도 모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따라서 어떻게 모임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의 성향은 이와 반대였기에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 및 성격과는 별개로, 작은 순종을 드러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크리스천인 학과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을 돌리고 학과 단독방에 홍보 글을 올릴 때, 비록 거절당할 때도 있었지만 간호기연 소속 의사를 표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려진 인원으로 서기연 내 '간호대기독교인연합'이라는 공식 명칭의 준회원 단체로 등록하여, 중보기도 및 단과대 지원금 등 서기연으로부터 영적·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의 형태는 구축했어도, 실제로 참여하는 지체들은 거의 없자 저는 낙심에 빠졌습니다. 혼자 모임을 이끄는 데 한계를 느끼던 중, 하나님께서는 선교단체 LDJ에서 캠퍼스 전도를 세우던 백재은 자매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시 연건캠퍼스에서 석사 공부 중이었던 간호사 출신의 재은 언니는 저의 멘토로서, 제가 먼저 복음과 말씀으로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며 간호기연을 위해 꾸준히 함께 기도 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조금씩 신앙을 회복하며 재작년 2022년, 시편 22:27-28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캠퍼스의 모든 학과와 단과대가 그분께 돌아오길 원하시기에 간호기연 모임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모이는 인원에 상관없이 매주 간호기연의 자리를 지키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같은 선교단체에서 서울대학교를 위해 사역하시는 신원식 목사님께서도 간호기연을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과 함께 말씀을 매주 생생히 나눠주시자 말씀에 갈급했던 영혼들이 모임에 꾸준히 나왔고, 그중 한명이었던 유창민 형제는 작년에 대표직을 이어받아 여러 친구에게 간호기연의 유익을 나눠주며 모임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렇게 간호기연은 점차 성장하여 지난 2023년 2학기엔 많게는 1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여 말씀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비록 저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 함께하진

못했지만, 소식을 들으며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홍유진 자매가 대표로 섬기길 결단하며 모임이 꾸준히 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연약하여 포기하려 할 때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모임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간호기연을 통해 주님께서 학과 공동체를 왜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기연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들이 학교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간호계와 의료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변화시켜 나갈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처럼 간호계 동역자들의 양성소인 간호기연이 세워지는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대학 시절 누구와도 바꿀수 없는 귀한 상급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캠퍼스 내 모든 학과에 기도모임 및 단과기연이 세워져 서울대학교의 영적 흐름이, 학계와 학문이,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서울대학교 부흥의 주역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 주저하고 있으시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한 걸음 내딛으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 한 가지 홍보하고 싶습니다. 현재 간호기연은 연건캠퍼스뿐만 아니라 관악캠퍼스에서도 모임을 세워 관악캠퍼스에 있는 간호학과 지체들과도 교제하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관악캠퍼스에서 모이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그런 지체를 알고 있는 분들에게서 010-4570-3024로 연락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예은(간호학부)

비전스쿨 유럽여행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제1기 비전트립 스위스, 영국, 프랑스 3개국을 돌고-

비전트립이란

2024년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1기 비전트립에서 스위스, 영국, 프랑스 3개국을 박홍수 목사님과 남승호 교수님을 비롯한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비전트립의 목적은 유럽의 기독교 역사를 학습하고 이 가운데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교회와 국제기구 탐방을 하고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을 보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비롯한 교회들과 옥스퍼드 대학교를, 프랑스에서는 미술관과 랜드마크를 방문했습니다. 비전트립 여행 스케줄은 짝했습니다. 첫날 비행기에서 밤을 새운 채로 아침을 맞았고, 아침 일정은 평균 6-7시에 시작되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곳을 방문하느라 늦게 숙소에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명도 크게 아프지 않았고 공동체 내 갈등도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전트립 가기 전

저는 저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웠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비전트립 가기 전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전트립 가기 전

저는 저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웠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비전트립 가기 전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원아, 유럽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기대하라'

스위스: 융프라우

스위스 행 비행기와 제네바에서 인터라켄, 베른, 취리히로 가는 기차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알프스 산맥의 고풍 중 하나인 융프라우에 가는 날, 요한복음 7:53-6 말씀으로 큐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날, 융프라우를 보기 위한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안개가 끼어 산맥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으면 바람에 안개가 살짝 꺾는 찰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산맥의 실루엣을 보면서 안개가 인간의 죄(욕심)이고 커다란 산맥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저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느냐 마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존 웨슬리 예배당

런던에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1703-1791)의 예배당에 방문했습니다. 예배당의 입구에는 존 웨슬리의 동상과 함께 "The World is my Parish(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태어나 옥스퍼드대학에서 수학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모임인 'Holy Club'을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회심(1738)을 경험한 후 웨슬리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을 벌였습니다. 영국교회는 그에게 설교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웨슬리는 거리로 나가 대중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다니며, 하루에 4-5차례씩 설교를 했고, 89세에 생을 마감하기 2주 전까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웨슬리의 삶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배당 옆에는 그가 살았던 저택이 있습니다.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택 꼭대기에서 매일 새벽 4-5시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웨슬리의 숨결이 느껴졌는지, 저도 한번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

평지가 많은 파리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몽마르뜨 언덕을 방문했습니다. 몽마르뜨 언덕에서 파리 시내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노트르담 성당과 에펠탑 등 파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보였습니다. 이때, 프랑스와 파리의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모두 방문하면서 유럽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국사를 배우면서든지 아니면 길에서 아름다운 교회 건물과 위대한 기독교학자, 목사의 동상들을 맞닥뜨리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유럽 곳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특히, 런던과 파리 시내에서는 유럽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를 기점으로 다양한 문화권에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땅, 그리고 제가 전공하는 동남아시아 땅을 넘어서 유럽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전트립을 다녀온 후

하나님이 비전트립에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역시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비전트립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매일매일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라는 찬양의 일부를 첨부하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전혜원(아시아언어문명학부 23)

**네비게이토**

단체 대표 성함: 정재원(건축19, 010-2339-9318)  
 SNS: @snu\_navigators  
 모임 장소와 시간: 학생회관 608호  
 한줄 소개: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

서울대학교 네비게이토 선교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28:19)” 하신 말씀을 따라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며 지상사명을 이루는 일을 목표로 사역합니다. 서울대 사역으로 생겨난 제자들을 통해 오늘날 전국 각 캠퍼스와 직장에서도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에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있습니다.

“(눅2: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처럼 우리는 성경공부와 암송, 전공 공부, 운동 교제를 함께하며 예수님을 본을 따라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원하시는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두루선교회**

단체 대표 성함: 고성현  
 SNS: (인스타) duru\_campus, (네이버 블로그 아이디) 두루맨  
 모임 장소와 시간: 제자반에 따라 자율적 모임  
 한줄 소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비전을 품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역하는 두루 선교회입니다.

두루선교회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teaching), 전파하시며(preaching), 고치시는(healing) 사역을 하신 것을 통하여 두루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평신도들이 재생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무장하려고 합니다. 두루선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매주 있는 소그룹 모임(제자반)을 통해 개인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배우며, 개강/중강 채플을 통해 여러 캠퍼스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두루제자연합 수련회를 통해 각 교회와 캠퍼스, 삶의 각지에서 제자사역을 하는 두루 지체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함으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르투스**

단체 대표 성함: 임대훈  
 모임 장소와 시간: 롯데국제관 강의실, 목 19:00 (학기마다 다름)  
 한줄 소개: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임

마르투스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기독교 동아리로 2013년 2학기부터 매학기마다 개강캠프를 시작으로 학기 중에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에서 매주 성경 공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2학기에 서기연 기독교동아리 준회원으로 등록되었고, 2024년 1학기 기준 학부생 7명, 대학원생 7명, 교수 및 직원 7명, 서울대병원 및 치과병원 의사 4명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내 기독교 활동이 많이 위축되는 상황에도 다양한 구성원이 활발하게 성경공부를 지속할 뿐 아니라 2023년 11월에는 교내에서 작은음악회를 결집한 복음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도 마르투스는 서울대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성서학당 IBS  
(Institute of Bible Study)**

단체 대표: 김용섭(재료공학부 18, 010-5360-7476)  
 문의처 : 김용섭(대표) 010-5360-7476, 민시원(간사) 010-4154-6824, 최윤희(회계) 010-5286-6512, 안현(총무) 010-3590-8584  
 단체 한줄 소개: IBS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의 선택과 고민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성서학당(Institute of Bible Study) 'IBS'입니다. 서울대 성서학당 IBS는 서울대 캠퍼스 선교와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여 성경 말씀과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삶을 말씀의 빛 안에서 돌아보며 간증하는 관계 중심의 캠퍼스 선교 단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전도와 제자 양육을 통해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대학생 활에서 겪는 삶의 고민을 진리의 성경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 됨을 찾고 진실된 관계를 배우며 알아가기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는 정기모임으로 성서 강해와 교제를 나누며 분기별로는 섬김과 나눔의 여러 활동과 수련회를 함께 하며 삶의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주변의 지체를 돌아보며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서학당 IBS!! 누구라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누길 소망하는 여러분을 성서학당 IBS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한사랑선교회  
(The Love Mission)**

대표 & 연락처: 박승성 간사 (010-6372-6128)  
 단체 한줄 소개  
 3L(Love, Light, Life)  
 복음은 모든 증오를 녹여버리는 사랑(Love)이며,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Light)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Life)의 능력입니다.

-단체 소개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8)  
 서울대에서 1971년 태동된 공동체로 청년의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영원한, 유일한,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파송하여 부르신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가진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역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배자, 전도자, 양육자, 사명자로 세우는 양육과 정과 기도모임, 매주 캠퍼스 노방찬양예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한국어교실”을 열어 한국어를 도와주며 친구관계를 맺고 사랑의 섬김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고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로 함께 자라가는 이곳으로 2024 새내기 여러분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ABSK**

단체 대표 성함: 서홍준  
 SNS: 인스타그램 @absk\_seoul  
 모임 장소와 시간: 주중 점심 모임. (시간과 장소는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바랍니다.)  
 한줄 소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

ABSK는 Koinonia라는 헬라어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통해 성경의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자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 동안에는 서울 내의 대학들이 함께 온라인 비대면 모임을 가졌습니다. 매주 소규모 식사 모임, 소규모 기도모임을 가지고, 학기 중에는 매주 성경공부, 방학 동안에는 수양회, Movie Night 등 다양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Harvard, MIT, UCLA, University of Alaska 등 미국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매년 전세계 ABSK가 함께 모여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전세계 ABSK가 모여 “What do you value most?” “Why is life so hard?” “What are you waiting for?” 등의 주제로 ABSK Forum을 가졌습니다.

**CAM**

단체 대표 성함: 김건모  
 SNS: 없음  
 모임 장소와 시간: 목요일 18:00~21:00  
 한줄 소개: CAM은 Christ's Ambassador Mission의 약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CAM 대학선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 대학과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제자 양육, 캠퍼스 정기예배, 전도와 섬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성경공부와 교제, 워킹 처치, 지부 연합 모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CC(한국대학생선교회)**

단체 대표: 전세일(건설환경공학부 20, 010-3353-9124)  
 SNS: 인스타그램 @snu\_ccc  
 모임 장소와 시간: 26동 B101호,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한줄 소개: 전도, 육성, 파송을 통해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는 CCC

CCC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세워 캠퍼스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Movements Everywhere(어느 곳에서나 영적운동을 일으키기)'라는 비전 아래 전도, 육성, 파송의 단계를 거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영적 리더로 훈련 받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채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선후배간의 '순모임'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크고 작은 '수련회'를 통해 즐거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며, 얼어붙은 캠퍼스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훈련 받고자 한다면 CCC에서 함께해보아요!!

**CMI(Campus Missions International,  
국제대학선교협의회)**

대표 : 이장호(의학, 010-2004-0627), 장정완 간사 (010-3638-0333)  
 SNS: 인스타그램@cmi\_snuss  
 모임 장소와 시간: 매주 목요일, 7시. 낙성대 CMI 선교센터  
 한 줄 소개 : “Be a good worshiper, make a good worshiper!”

CMI는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복음주의 대학생선교단체예요. 1961년부터 50여 년간 한국과 세계캠퍼스 선교를 위해 힘쓰며, 국내외 세계 캠퍼스를 성경말씀으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 서울대 CMI는 '서울대를 위한 CMI, 예수의 CMI'의 목표 아래, 1) 인격적인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한 삶의 변화 체험, 2) 매주 캠퍼스 예배를 통한 캠퍼스에서의 신앙고백, 3) 학기별 수양회와 캠프, 방학 중 해외 비전트립 통해 폭넓은 교제와 영적 성장, 4) 큐티모임과 독서모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Be a good worshiper, make a good worshiper!"의 비전을 갖고, 우리 삶의 일부인 캠퍼스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하고, 참 예배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CMI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대학생활을 만들어가 봐요^^

**ECU**

단체 대표 성함: 이재성(컴공 박사과정)  
 SNS: @ecu4u\_official  
 모임 장소와 시간: 토요일 2시 역삼역 3분거리 (논현로 87길 23)  
 한줄 소개: 나와 세상이 변화되는, 성경 66권 알아가고 알려주기.

나와 세상이 변화되는, 성경 66권 알아가고 알려주기. ECU의 큰 특징은 PBS,  $\theta$ 와의 교제, 전도입니다. Personal Bible Study (PBS): 성경 말씀을 바른 신학적 관점으로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알게 된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ta$ 와의 교제: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히 방학마다 있는 5박6일 수련회에서 하루 1시간반의 충분한 기도를 훈련합니다. 전도: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다면 혼자서는 누릴 수 없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줍니다. 말씀에서 능동적으로 보화를 캐내고, 누리고, 나눠주는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 ECU.

**ESF**

단체 대표 성함: 우진영(영어교육22, 010-9126-7283) / 김민규(간호21, 010-8251-0074)  
 SNS: 인스타그램 @gwanak\_esf  
 모임 장소와 시간: 매주 목요일 19시, 관악ESF 회관  
 한줄 소개: 말씀의 사람들 ESF

ESF는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의 약자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근거로 설립된 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우리는 캠퍼스 복음화를 통한 성서 한국과 세계선교를 꿈꿉니다. 서울대가 소속된 ESF 관악지구는 송실대, 충신대, 경인교대 등 여러 캠퍼스가 모인 연합동아리이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서울대 입구역 관악ESF 회관에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또 서울대ESF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 성경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캠퍼스 모임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아침QT, 일대일, 방학 전국수양회 등을 진행합니다. ESF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곳이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의 삶을 함께 세워 가는 공동체입니다. 서울대 안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ESF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IVF**

단체 대표 성함: 이윤성(지구환경과학부 19, 010-2752-2372)  
 SNS: 인스타그램 @snu\_ivf  
 모임 장소와 시간: 학회관 416호, 수요일 저녁 7시  
 한줄 소개: 캠퍼스와 세상속의 하나님나라 운동

IVF는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모드로 활동하는 초교파 복음주의 학생운동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성경 강해와 나눔, 소그룹별 성경연구

를 통해 말씀이 삶에 맞닿아지도록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상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MT와 수련회 등을 통한 교제로 따뜻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또, 소그룹 모임과 원투원으로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자유롭고 솔직한 나눔을 환영하고,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안전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IVF와 함께해요~

**Joy**

단체대표: 박예찬(기계공학 19, 010-7570-1396), 김채현(경제 20, 010-7226-5606)  
 SNS: 인스타그램 @joymission\_snu  
 모임 장소 및 시간: 학회관 422호,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정기예배(자연대 26동 B101호)  
 한 줄 소개: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spell JOY!

조이선교회(JOY)는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나 자신을 마지막으로 둘 때 참 기쁨이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건전한 초교파적 복음주의 선교 단체입니다. 이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복음에 따라 사는 참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JFM(Jesus First Meeting)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학기 성경공부와 북스터디 등의 모임을 통해 신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및 교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T, 소풍, 글램핑, 피크닉, 야구 직관, 롯데월드 등 학기 중 다양한 모임을 통해 연합을 통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방학에는 수양회, 리더 훈련, 선교 사역 등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선후배의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배우고, 삶을 나누며 함께 즐거운 공동체를 누리는 joy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단체 대표 성함: 장유민, 민소연  
 SNS: 인스타그램 @snu\_ldi  
 모임 장소와 시간: 자연대 26동 B102호, 오후 8시  
 한줄 소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세계 열방에 전하는 제자, LDI

서울대 LDI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18-20)에 순종하여, 영성과 인성, 전문성을 갖춘 사회 각 분야의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하기 위해 훈련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입니다.

LDI에서는 1:1 양육은 물론, 캠퍼스 모임과 정기적인 기도회, 전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를 돕는 멘토와 든든한 신앙의 선배, 동료들이 함께 합니다. 지체들과의 교제와 간증, 나눔을 통해 아가페 사랑을 누리고, 또 다른 영혼들을 돕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는 전문인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고 싶다면, LDI와 함께해요 ♡

**SFC (Student For Christ)**

단체 대표 : 고재언(자유전공학부 22, 010-3106-2851)  
 SNS: 인스타그램 @snu\_sfc  
 모임 장소와 시간 : 학회관 419호,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반  
 한 줄 소개 : SFC(학생신앙운동)는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과 삶을 추구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큰모임'으로 다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소그룹 모임인 '작은모임' 시간에는 책 모임, 악기 교실, 맛집 탐방 등 다양한 활동으로 긴밀히 교제합니다. 방학에는 '대학생 대회'로 전국 SFC 운동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교제하며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답니다! 또한, 'MT'와 자율적인 '성경 통독 모임'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쌓아갑니다. 캠퍼스를 넘어 서울 지역 각 학교의 SFC 운동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강예배와 새내기 어울마당, 신앙강좌 등으로 함께합니다. 또한 졸업하신 동문 선배님들과의 식사 모임을 통해 비전을 나누고 고민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서울대 SFC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의 삶을 함께 또 힘껏 누리길 원합니다! 가족같은 분위기의 SFC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D

**UBF**

**(University Bible Fellowship)**

단체 대표 성함: 표진주 (지구과학교육 대학원 23, 01027313750)  
 SNS: snubfriend  
 모임 장소와 시간: QT 모임(수요일 저녁 6시, 67동 204호), 성경읽기 모임(토요일 오전 9시, UBF교회), 주일 예배(일요일 오전 11시 20분, UBF교회)  
 한줄 소개: 성경 공부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Your Best Friend, UBF입니다.

UBF는 대학생활을 하며 나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최우선으로 두고 활동하는 동아리입니다. 선배와의 일대일 성경공부, 그룹 바이블 스터디, 주일 예배, QT모임 등 다양한 모임을 통해 말씀을 풍성히 배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형식적으로만 공부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UBF에서는 말씀에 관한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정리하며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자 노력합니다. 이외에도 봄MT, 여름수양회, 국제수양회(체코 프라하, 8월초) 등을 통해 선후배, 친구들과 즐겁고 진솔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싶은 분들 UBF로 오세요~!

**YWAM**

단체 대표 성함: 김성경(사회학과 20, 010-5007-8166)  
 SNS: @snuywam  
 모임 장소와 시간: 매주 화요일 6시 반, 26동 B102호  
 한줄 소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안녕하세요? 기독교동아리 예수전도단입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 6시 반에 캠퍼스모임으로 예배 후 교제하고, 목요일에는 캠퍼스워십으로 서울 지역의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일 아침 8시 10분에 묵상모임과 화요일 오전 9시 중보기도모임으로 기도와 교제에 힘쓰는 동아리입니다♡

원단금식기도회

2월 17일, 기독교수협의회가 주관하여 격년으로 개최하는 (서울대 원단금식기도회)가 26동 B101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원단금식기도회는 서울대 복음화를 위해 섬기는 모든 기독교 단체들의 대표와 임원, 회원이 함께 모여 서울대학교와 우리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이다.

기도회는 총 여섯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은 20분의 찬양, 30분의 말씀, 그리고 30분의 기도로 이루어졌다.



“찬양과 감사”를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는 신승호 대학총교회 부이사장이 누가복음 18장 9-14절 말씀으로 율법과 형식에 얽매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용서를 향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회개”를 주제로 한 둘째 세션에서는 임현우 대학총교회 담임목사가 예레미야서 7장 1-12절 말씀을 통해 “성전이라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대학복음화”를 주제로 한 셋째 세션에서는

백향목 서울대 선교단체간사협의회 ESF 간사가 요한복음 13:34-35절을 통해 사랑 기근의 시대를 극복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주제로 한 넷째 세션에서는 제성호 교수(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 회장)가 마태복음 25장 4절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통해 “기름을 준비함으로 빛을 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통일”을 주제로 한 다섯째 세션에서는 박동열 불어교육과 교수가 누가복음 6장 27-35절과 로마서 12장 19-20절 말씀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다. “부흥”을 주제로 한 여섯 번째 세션에서는 이근영 더크로스처치 선교사가 사도행전 4장 24-31절 말씀으로 연합된 기도와 부흥의 가치를 전하였다.

찬양과 기도 또한 세션마다 여러 단체의 임원들이 돌아가며 맡았다. 서울대학교교회 학부예배 찬양팀과 대학총교회 찬양팀, 선교단체간사협의회 찬양팀, 대학원예배 찬양팀, 수요일원예배 찬양팀, 에클레시아팀이 찬양을 드렸으며 정권대 서울대 기독교신우회 회장, 신상주 서울대학교교회 목사, 남



명현 전 서기연대표, 최영 서울대 학부모기도회 집사, 박정우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서울대 기도학교팀이 기도를 인도하였다. 사회는 남승호 언어학과 교수(기독교수협의회)가 맡았다.

금식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단체의 대표, 임원, 회원이 이른 아침부터 모여 예배를 준비하였다. 기도회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40분까지 긴 시간 진행된 기도회였음에도 대면으로 40여 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다. 2024년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의 부흥의 해를 주시옵길 바라는 한마음으로 함께 캠퍼스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



였다. 특히 분열하는 사회에서 우리 서울대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해 서울대 기독교 공동체의 공감대가 확인되었으며 계속 기도하며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큰 비전으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편집부

중앙위원단 LT



안녕하세요,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중앙위원 문예은입니다. 중앙위원단은 2024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로 LT(Leadership Training)를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은 동경대를 방문해 사회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반석(인류 09) 전 중앙위원과 교제했고, 저녁에는 한인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아사쿠사 지역을 방문하였고, 오후에는 시부야로 이동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디즈니랜드와 미나토구를 다녀왔습니다.

가장 먼저, 김반석 전 중앙위원과 함께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며 연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연합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합을 위해 아낌없이 정성을 쏟았던 선배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서기연의 가치는 ‘통합’이 아닌 ‘연합’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 단체들은 신학적으로 다양하고 또 사역의 방향성도 완전히 제각각이지만 서기연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의 공통점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선배는 나와 다른 신학을 추구하는, 정반대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생각의 차이로 때로는 부딪히기도 했지만, 또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기연을 통해 나와 다른 이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고 신앙을 나누는 ‘인격적 관계’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통합’이 아닌 ‘연합’을 추구하며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연과 함께 만들어 간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 선배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의 대학생활도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가득하기를 꿈꾸며, 아직 캠퍼스 속에서 기연이 살아 숨 쉬기를 알리는 우리의 방문이 고단한 유학 생활 중 선배에게 위로로 다가왔기를 기도했습니다.

도쿄의 여러 지역을 기차로 오가며, 중앙위원들에게 하

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답을 들었습니다. 공기같이 삶은 은밀히 품으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위로자라 합니다. 우리의 삶 속 주권을 가지길 원하시며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우리는 예배라 부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아가는 발걸음은 지친 우리를 다시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중앙위원과 같이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는 자리에 있다보면 예배는 때로 일처럼 느껴집니다. 준비하는 순간마다 ‘이번에도’ 드리는, 또 한번 지나가는 형식적 예배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예배의 의미를 일본에서 조금이나마 체험했습니다.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일본에서 예배는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근처에 교회가 없어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어 외로이 신앙을 지킵니다. 한인 가정에서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준비해주고 고맙다고 연신 말씀해주시며 눈물로 나눠주시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외국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서럽고 고달픈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마음 놓고 찾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부재하여 더욱 힘들었음을 말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힘겹게 신앙을 지키시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에겐 그저 흘러 지나가는 ‘또 하나의’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절실했을 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봅니다. 중앙위원으로서 전심을 넘어 목숨을 걸어야 할 예배, 하나님 당신을 찾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있기에 이 모든 예배가 의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쿄에서의 짧은 기억은 함께하는 이들과 ‘인격적 관계’를 토대로 사랑을 실천

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었습니다. 매 순간이 예배였습니다. 때로는 식비가 많이 든다고 투닥투닥 거리면서도 진지하게 신앙적 고민을 함께 나누던 대화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가보는 디즈니랜드의 불꽃놀이보다 중앙위원 간의 대화와 가정예배가 먼저 생각납니다. LT를 가는 기회가 있었음에, 이를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LT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과 재정을 후원해주신 대학총교회, 기독교수협의회, 서울대기독교인연합, 15, 16, 19, 21 중앙위원단에 감사드립니다.

문예은(산림과학부 21)

서울대 국제학생사역 자원봉사자 환영!

## Int'l Student Ministry

2024 활동계획

- ▶ 합동미팅 by 국제학생단체(ISO) (3월 9일, 4-7PM, @기숙사)
- ▶ 다양한 언어별 티타임
- ▶ Korean Class/한국어 교실
- ▶ 주중예배 & 찬양
- ▶ 성경공부 & 소그룹 교제
- ▶ 스포츠, 여행, 음식
- ▶ 다양한 문화체험

서울대에서 국경을 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모든 한국 & 국제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QR코드로 등록하세요!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서울대 기독교수협의회  
010-4544-4350 강지현(자선) / 010-6763-6668 장정수(영양)

ISM 유학생 사역

## SNU Bible College 성경강좌 수강신청

대학원생 과목부설 대상

신경 66권 탐구(국영) 신경 66권 탐구(국영) 필수일 오후 6:00-7:00	신경 인문학 보는 여성리더십 신경 인문학 보는 여성리더십 필수일 오후 7:00-8:00
요한복음 자체미팅기 요한복음 자체미팅기 필수일 오후 6:00-7:00	성경을 관통하는 중일본 바로 읽기 성경 관통하는 중일본 바로 읽기 필수일 오후 6:00-7:00
기독교세계관 바로 배우기 기독교세계관 바로 배우기 필수일 오후 6:00-7:00	서울대 기도학교(3/14 개강) 서울대 기도학교(3/14 개강) 필수일 오후 7:00-9:00
복음과 인생 복음과 인생 필수일 오후 6:00-7:00	서울대 선교학교(4/26 개강) 서울대 선교학교(4/26 개강) 필수일 오후 7:00-9:00
복음집 사서기(팀) 펠리 복음집 사서기(팀) 펠리 필수일 오후 6:00-7:00	속사담 직류 변역(과정) 속사담 직류 변역(과정) 필수일 오후 6:00-7:00
성령님을 만나세요(Jack Hyles) 성령님을 만나세요(Jack Hyles) 필수일 오후 7:00-8:00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3월 15일까지입니다.

SNU 바이블 칼리지

삼크 모임(MK)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선교사 자녀이자 서울대 선교사 자녀 모임 “삼크” 대표 김은비라고 합니다. 편의상 선교사 자녀를 MK (Missionary kid)

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삼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3살 많은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는 현재 다른 캠퍼스에 재학 중입니다. 그 학교는 기독교 학교라서 교목실이 있었고 그 아래에 큰 MK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의 문화가 어색한 후배들을 선배들이 케어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저의 오빠 또한 그 시스템의 수혜자였습니다. 특히 고생스러웠던 선교지 생활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대학생들 사이에서 섞이지 못하는 MK들이 동아리에서 보살핌을 받고 공동체 속에서 치유를 얻는다는 오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언젠가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선교지에서 힘겨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MK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지의 시간도 힘들었지만 한국에 와서도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난 후 저에게는 MK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시작은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MK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MK들은 한국에 와서 정체성과 신앙에 대한 고민, 문화적 충격 그리고 언어적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모든 것을 먼저 겪어 본 선배로서 작은 조언을 주거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는 서울대에 입학하고 후시라도 MK모임 같은 것이 있을까 선배들에게 물어봤지만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지금이 그 공동체를 만들 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뜻을 가진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삼크는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삼크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물론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로 MK들을 찾는 것부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대는 너무 크고 MK들 스스로가 선교사 자녀라고 드러내는 데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OT, 서기연MT 등에 참여하여 직접 발로 뛰며 MK들을 찾으려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삼크는 MK들로만 구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정식 동아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고 모일 수 있는 정해진 장소가 없어 항상 밖에서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크를 위해 저희끼리



생활비의 일부를 모으고 그 자금을 사용하여 식당이나 카페 등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행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대학동 쪽에 대학촌선교센터가 생겨 그곳에서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모임에서 저희는 찬양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도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했으며 들은 말씀을 정리해 목상 노트도 만들곤 했습니다. (저희 삼크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snu\_mk @mooksang\_snumk) 모임을 하며 저는 삼크가 정식 동아리가 아니라고 해도 저희를 지도해 주실 어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 한 교수님이 연락이 되었고 또 아버지가 독일 교회에 잠시 방문하셨을 때 갔던 교회에서 또 다른 교수님을 만나게 되어 교제를 나누며 저희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흔쾌히

도와주시겠다는 답변을 들어 연락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은 저희 모임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저희에게 밥도 사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삼크의 상황은 인원은 약 12명 정도가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열심히 대책을 찾고 있으나 답이 보이지 않아 조금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기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삼크 리더들이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로 후배 MK들이 삼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저희가 후배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면 그 사랑을 받은 후배들이 그 다음 후배들에게 사랑을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는 로마서 5:2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김은비(인문계열 22)



2024 신앙오티 준비 후기

신앙오티 예배팀



살롬! 2024 신앙OT/홈커밍예배의 예배팀장 김수훈입니다.

저희 예배팀은 이번 행사 중 저녁 예배에서 찬양으로 섬기며 서기연 지체들과 함께 예배한 팀으로, 지난 1월부터 마음을 모아 기도와 교제, 합주 연습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가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까지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예배팀도 작년 학부 신입생부터 대학원생, 졸업생까지 한 팀으로 뭉쳤고, 감사하게도 대학촌교회에서 선교센터 내 연습 공간을 제공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귄,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제로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학부 졸업생이자 동시에 지난 가을 학기부터 석사 과정을 위해 캠퍼스로 돌아온 제게 있어서, 이번 예배는 신입생을 비롯하여 학부 재학생과 대학원생, 졸업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팀원들 모두와 행사에 함께한 모든 서기연 지체들에게 귀한 ‘하나님과의 추억’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김수훈(AI교육 석사과정)

신앙오티 프로그램팀



안녕하세요. 2024년 신앙 OT 프로그램팀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20학번 신화영입니다. 새내기 때 처음 신앙 OT를 알게 된 후 대학 생활 중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기에, 신앙 오티에 관해 항상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졸업 전 신앙 OT 프로그램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앙 OT의 는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서기연 룠에는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

다. 프로그램 시 최대한 새내기들이 서울대학교에 입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든든한 동역자가 이 캠퍼스에 많음을, 절대 혼자 가아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꼭 신앙 OT를 통해서가 아니어도, 새내기들이 앞으로 서울대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과의 여러 추억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화영(심리학과 석사과정)

신앙오티 헬퍼팀



안녕하세요! 이번 신앙오티에서 학부 헬퍼팀 팀장을 맡은 전기·정보공학부 22학번 김도진입니다.

헬퍼팀은 오티 당일 새내기들과 함께 조를 이루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직접 환대하고 환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새내기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인 만큼,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열정의 마음이 깊은 지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새내기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연합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먼저 우리가 더욱 좋은 공동체가 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의

준비 모임을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삶을 격려하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새내기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서울대에서의 모든 시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교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동역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김도진(전기정보공학부 22)

종강예배



스데반에 관한 설교



찬양하는 지체들



축복의 순간 - 1



축복의 순간 - 2



학부모기도회 특송



합심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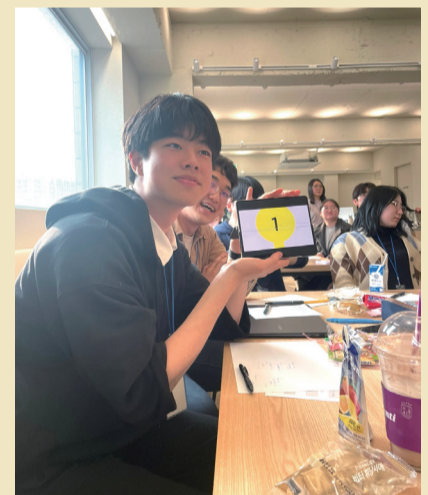
신앙오티



2024 새내기 신앙오티 포스터



캠퍼스의 추억을 나누는 임현우 목사(대학총교회)



<가치 경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입생



저녁 예배 단체 사진



사랑을 몸으로 표현해본다면? - 3조



<진술 게임> 상품을 위한 가위바위보